

민주·조국혁신당, 연대 강화냐 경쟁이냐

국정조사·특검 등尹 정부 상대 투쟁 협력 속 민심 잡기 경쟁
민주, 친명체제 강화 ... 이재명 독주 무대에 우원식 당권 도전
민형배 최고위원 도전 ... 지도부에 '호남 소외' 문제 해결 주목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관심

4·10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짐에 따라 원내 제1당과 제3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양 체제의 연대가 강화될지, 경쟁 체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양 당의 공약이 비슷한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연대와 협력 관계를 지속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나 특검 추진 등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친명' (친 이재명) 일색이라는 비난을 고려해 연대 속 양 당간 경쟁 관계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호남 민심 잡기를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8월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체제의 당권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조국혁신당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20석) 등을 추진해 원내 영향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친명'계 국회의원들이 대거 제22대 국회에 입성함에 따라 '이재명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이 퍼지고 있다. 이 대표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등 전당대회에 연임을 위한 출마를 넘어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조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당권 강화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1대 국회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던 만큼, 자신의 측근들이 대거 당선된 22대 국회에서 당대표를 맡아 대거 투쟁의 강도를 높이며 사법리스크를 정면 돌파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최근 당 대표실에 이 대표의 경계지사 시절 인연을 맺은 인사들이 새로 영입되는 등 당권 주변에 '이재명의 사람들'이 포진하는 폭도 커지고 있다. 또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의 연임에 대한 수도권과 지역의 여론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연임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이재명과 친명의 강세가 접착되고 있어서이다. 총선을 통해 22대 국

회가 친이재명계 라인으로 대거 교체되면서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서더라도 압승이 예상되고, 그의 측근들의 지도부 포진도 용이한 형국이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대표 연임 금지 규정이 없는 점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고 있다.

다만, 당 대표를 연임한 사례가 없는 점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점이 당권 재도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당 내에서는 총선 승리로 당내 입지가 탄탄해진 상황에서 당대표 재도전으로 굳이 비명계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어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내 당권주자로는 5선의 우원식 당선자와 4선 정청래 당선자 등의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총선 선거 운동 기간 후보 지원 유세로 존재감을 과시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용진 의원은 비명계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재선의 친명계 민형배(광산) 당선자가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22대 국회에서는 호남 지도부 소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국혁신당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 정부와 대거 투쟁에 대해서는 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대표가 당권 재도전에 나설 경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친문' (친 문재인)계 등 비명계가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하며 3당으로 올라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합당에 선을 긋고 있는 만큼 다음달 개원하는 차기 국회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당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원내 교섭력 강화 등을 통해 원내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을 충족하기 위해선 8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 교섭단체가 되면 각 상임위·특위에 간사를 둘 수 있는 것은 물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도 받을 수 있어 원내 영향력이 배가되고 정당 보조금도 확대된다. 우선 군소정당과 손잡고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향후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계 규합의 구심점이 될 경우 민주당 이탈자가 합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 비례대표 정당 전국 득표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은데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던 만큼 향후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이 높아진다면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란이 영사관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무더기로 발사한 14일(현지시간) 사백 이스라엘 남부 도시 아슈켈에서 이를 요격하기 위한 대공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란, 이스라엘 본토 공격... 중동 '폭풍 속으로'

미사일·드론 300여발 발사 세계 안보·경제 강타 우려

이란이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대규모 심야 공습을 단행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등 자국 방공체계에 공습을 심각한 피해없이 방어한 뒤 재보복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로 인해 중동 상황이 확전의 중대 기로에 놓인 가운데 보복의 악순환을 통해 제5차 중동 전쟁으로 확대되면 세계 안보와 경제에 미칠 여파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사실상 처음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악화된 '중동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열렸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이스라엘은 재보복 임장을 일찌감치 천명했으나 맹방인 미국 등이 만류하고 있어 항배가 주목된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이란이 13일(현지시간)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무인기)을 200발 넘게 발사했다고 밝혔다. 하가리 대변인은 "이란이 자국 영토에서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지대지 미사일 수십발을 발사했다"며 "그 미사일의 대다수는 우리 방공체계에 의해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 요격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발사한 드론이 185대, 순항미사일이 36기, 지대지 미사일이 110기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피해가 경미하다고 밝혔다. 하가리 대변인은 "얼마간의 미사일은 영토에 떨어졌다"며 "현시점에서 소년 1명이 다친 것, 남부에 있는 이스라엘 군기지가 타격당해 가벼운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란의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이 지난 1일 시리

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급 지휘관을 제거한지 12일만이다.

이번 주말 심야 공습은 이란의 첫 전면적인 이스라엘 본토 공격이다. AP통신은 1979년 혁명으로 이란에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이스라엘을 향한 전면 공격은 처음이라고 주목했다.

한편 외교부는 14일 이란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 체류중인 한국인의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범무법인 거북이 설립인사

저는 이번에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정년 별관을 떠나 범무법인 거북이의 대표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이 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 4. 15.
범무법인 거북이 대표변호사 김태호 올림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상무역로112, 112동 302호(서현동, 제갈침비스트타워)
- 주 사무소: 광주 서구 상무역로112, 112동 302호(서현동, 제갈침비스트타워)
- 대표전화: T. 062-710-0900, F. 062-710-0907
- 2024. 3. 28.
- 광주지선 변호사소: 광주 동구 문법로10, 2층(지선동)
- 서울시선 변호사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4, 503호(서초동, 화평빌딩)

- 주요 학원 및 경력
-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 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 30기
-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랑과 감사의 70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당신이 찾던 럭셔리 미래
The new EQS SUV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임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선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S 450 4MATIC SUV (5인승)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3.6/ 도심: 3.7, 고속도로: 3.5) 1회 충전거리(km): 459, 공차중량(kg): 2850, 배터리 용량(kWh): 107.1
EQS 580 4MATIC SUV (5인승)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3.5/ 도심: 3.6, 고속도로: 3.4) 1회 충전거리(km): 447, 공차중량(kg): 2890, 배터리 용량(kWh): 107.1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